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VLCC rates come off sharply in thin trade ahead of Opec+ and G20 meetings

이번 주 산유국들 간 감산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VLCC(초대형유조선) 용선 시장 내 플레이어들이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하면서 스팟 운임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도됨. 발틱거래소에 따르면 중동걸프-중국 노선 스팟운임이 125,638달러 기록하며 전일 대비 41,000달러 줄어들었다고 보도됨. (TradeWinds)

Norway joins oil price war with rising exports from Johan Sverdrup

노르웨이가 원유 수출물량을 늘리며 1분기 수출량은 하루 127만배럴을 기록했다고 보도됨. 1분기 기준으로 Johan Sverdrup 유전이 전 분기 대비 하루 30.4만 배럴 정도 증산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도됨.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노르웨이 수출 물량 증가로 북해지역을 경유 노선을 위한 VLCC 등 유조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 (TradeWinds)

ExxonMobil stalls Rovuma LNG sanction amid \$10 billion capex cut

미국의 슈퍼 메이저 ExxonMobil사가 CAPEX 계획을 10억달러 정도 줄이며 Rovuma LNG 프로젝트 및 Stabroek block 개발 프로젝트 일정도 중단한다고 밝힘. 사측은 낮아진 에너지가격 및 COVID-19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힘. 2020년 운영비용을 15% 줄일 예정이며 CAPEX는 당초 계획한 330억달러에서 30% 줄인 230억달러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보도됨. (Upstream)

탱커 시장 초점 PC로 이동

탱커 정기 용선 시장의 초점이 유조선에서 PC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도됨. 석유제품 재고가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해상 저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라 선주나 용선주들은 용선 기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됨. 최근 한 주 동안에만 최소 LR탱커 9척과 MR탱커 3척이 높은 용선료로 정기 용선되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컨'선 시장 5월에 최악

컨테이너선사 CMA CGM측은 5월 전세계적으로 컨테이너선 운항률이 30%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힘. 약 500척의 선대 중 10~15척이 hot lay up(짧은 기간 내 운항 가능한 상태로 대기) 상태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보도됨. 중국의 제조업 가동률은 100% 회복되었으나 유럽과 미국 소비 시장 문제로 3분기까지 물동량 증가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현대중공업, 생중계 토론 제의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이 임금교섭 마무리를 위해 노사 대표가 사내 생중계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고 보도됨. 이같은 노조 제안에 대해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빠른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보여주는식 생중계 토론이 아니라 임금교섭과 무관한 현안을 분리하는 등 노조 입장변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힘. (선박뉴스)